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기초 연구 :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호혜적 교류를 중심으로

아라키 준*

요약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 연구로, 9세기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일본인 승려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에 주목하여 엔닌이 남긴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분석했다. 분석 과정에서 재당 신라인이 엔닌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 '과잉'에 가까운 지원을 단순히 일방적 '시혜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이에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함께 재당 신라인과 엔닌의 관계가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이별' 장면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일방적인 시혜 관계라기보다는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맥락에서 경제적 '호혜성'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깊은 정서적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장학금을 포함한 지나치게 시혜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불공평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호혜적 교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엔닌(圓仁), 재당 신라인, 호혜성, 『입당구법순례행기』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8096 275).

*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문화인류학, 초빙교수, jirosuan@naver.com

1. 서문

지난 2024년 6월 중앙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토된 것으로 외국인력의 통합적 총량 관리나 비자 요건 완화,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외국인력을 알선하는 민간업체의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4.06.20).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추진 과제 중 ‘유학 졸업생 등의 인력 활용성 제고’라고 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구체적으로는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등 취업 분야 확대’와 ‘구직(D-10) 단계 취업·연수 기회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 12-13)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현재 한국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 그리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체 등이 잠재적 생산 인력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김성은·이교일 2019; 김운주 2024)에 따르면 원래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주로 해외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가 ‘유학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가 시작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무역 외 수지 적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때 유치정책의 역점은 가시적인 양적 증가에 있었다. 2010년대가 되면서 불법체류나 중도 이탈, 국민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시선 악화 등 양적 증가 위주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하여 유학생의 ‘질적’ 향상과 대학교의 유학생 관리 역량 관리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2020년대가 되면서 다시 양적 증가가 추구되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을 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제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의 유학생 유치정책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이나 국민 여론의 동향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양적 유치 확대를 기본 기조로 하되 질적 수준 유지도 도모하는 다소 상충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언급한 2024년 6월 발표된 ‘외국

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생산 인력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에 정주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나 지역사회 등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2020년 9월경부터 빗어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경북대학교 무슬림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나, 2024년 5월 전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스트레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¹가 보여주듯,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문화적 차이,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아가 그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멘토링 프로그램, 심리 상담, 유학생 전용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대학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하면, 취업 지원 서비스나 생활 지원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다. 또한, 비자 취득이나 변경과 같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나서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이처럼 유학생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한 대책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공교육이나 시민교육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 물론 기존에도 다문화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콘텐츠는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사람의

1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KBS뉴스(2023.02.02; 2024.05.24)나 경향신문(2023.06.13), 남도일보(2024.06.05)를 비롯하여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어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과거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다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 연구로서, 9세기 일본인 승려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입당구법순례행기』²(이하 『행기』로 약칭)를 남긴 엔닌(圓仁)과 동아시아 해상 무역에서 활약한 재당 신라인³ 간의 교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엔닌은 ‘당나라 유학승’으로서 기본적인 ‘호스트’는 당인이었다. 그러나 엔닌은 유학 여정 중 꾸준히 재당 신라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당나라 내 신라인 공동체에서 체류한 기간도 길었다. 따라서 재당 신라인 또한 엔닌을 유학승으로 맞이한 ‘호스트’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엔닌과 재당 신라인 간의 교류는 현대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와 관련하여, 다문화 사회에서의 역사 교과서에 관한 연구와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본고에서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인용할 경우, 한문 원문과 일본어역이 병기된 深谷憲一 역서(1990)를 저본으로 활용했다. 본고의 『행기』 한국어역은 深谷의 일본어역과 원문 학문을 대조하면서 필자가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

3 본고에서는 ‘재당 신라인’을 주로 중국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펼친 신라인을 중심으로 하되, 원래 신라인이었다가 중국에 귀화한 것으로 보이는 장영이나 이원좌와 같은 관료나 승려 등, 당나라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던 신라 출신 인물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권택영 2003).

1) 다문화 사회에서의 역사 교과서에 관한 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을 검토하는 데 초·중등교육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국가의 기본 틀이 마련된 고대에 대한 서술 방식은 청소년의 국가관과 타자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고대사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역사 교과서의 바람직한 형태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교육은 ‘단군 할아버지’로 표상되는 단일민족 신화와 동일한 문화 공동체로서의 역사 서술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다(권순홍 2024: 106).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민족주의적 역사 서술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교육을 제안하는 연구도 등장했다(김육훈 2017; 김한중 2017; 방지원 2015).

예를 들면 권순홍(2024)은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나는 이주민 서술이 자민족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취사 선택되어 이주민의 주체성을 왜소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타자와 공존하고 차별과 편견을 극복해야 하는 한국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권오영(2024)은 다문화사회에 부합하는 연구와 교육의 전개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개별 고대사 연구자가 비교사적 시각과 고고학·인류학적 지식,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필자는 역사 서술이란 객관성을 기본으로 하되, 무수한 역사적 사실 중에서 시대적 요청이나 개인적 주관에 따라 취사 선택된 사실을 재구성하는 행위라는 입장에 서있다. 이에 지금까지 한국 역사 교과서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식민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또한 민족적으로 단결하여 북한과 대항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맞춘 역사 서술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를 다문화 교육과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주제인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를 다룬 최근 선행 연구⁴에 관해서는 9세기 재당 신라인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권덕영(2003)의 연구, 엔닌이 당나라 유학 중에 만난 신라인을 직업별로 분류하여 그 활약상을 분석한 이병로(2000)의 연구, 엔닌의 구법 순례에 지대한 도움을 준 재당 신라인의 정보력에 초점을 맞춘 이유진(2009)의 연구, 엔닌이 묘사한 적산법화원 보살계 수계를 분석하여 신라 본국과는 다른 적산법화원 특유의 평등성과 단결력을 부각시킨 조범환(2010)의 연구, 『행기』뿐만 아니라 명문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재당 신라인 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신라원의 실태를 해명한 석길암(2017)의 연구, 당나라 여정 중 엔닌이 조우한 사람들과 자연의 이름을 단서로 재당 신라인의 평범한 삶과 자연의 모습을 복원한 주성지(2020)의 연구, 동북아시아 불교교류사의 관점에서,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관계를 중심으로 『행기』를 분석한 이춘희(2022)의 연구, 『행기』를 바탕으로 정치적 정체성은 당인이었으나 대외 활동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인 신라인을 내세워 자유롭게 활동한 재당 신라인의 유연한 이중성을 초명한 ZHANG YUAN(2024)의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적산법화원의 추석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격을 해명하려고 한 민속학적 연구(김인희 2014; 서영대 2022; 신종원 2021)나 관광학적 시각으로 재당 신라인이 마치 현대적 여행사 역할을 하면서 엔닌을 지원한 양상을 논한 연구(고태규 2020)도 있다.

이들 연구는 『행기』를 바탕으로 9세기 재당 신라인 공동체의 실태나 그들과

4 관련 연구에 관해서는 방대한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현대적 관제를 다루는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엔닌의 교류를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재구성하려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행기』가 생생하게 묘사한 9세기 동아시아의 활발한 인적 교류를,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로 접목시키려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병로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병로(2011: 494-511)는 “(자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루빨리 자국사(自國史) 중심의 일국사(一國史)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시각으로 교류를 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며, 동아시아의 전정한 평화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재당 신라인과 엔닌의 교류를 부각시키고, 그 교류를 참고삼아 “국경을 넘어 북동아시아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이병로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이병로의 연구는 재당 신라인과 엔닌의 교류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생생한 교류 모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천적인 다문화 교육의 구체적 방향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병로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면서 조금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⁵

1) 엔닌의 구법 여정과 재당 신라인

엔닌의 당나라 구법은 조화(承化) 견당사와 동행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838년 6월부터 847년 12월까지 약 9년 반에 걸친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

5 여기서 서술한 역사적 내용은 深谷憲一 역서(1990)를 바탕으로 佐伯有清(1989; 2007)와 鈴木靖民(2009)의 연구를 참조하면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다. 일본 출국 시 두 번이나 조난당했으며, 출항에 성공하는 데 거의 2년을 소요했다(836-837년). 첫째 출항 시 견당선 4척 모두 조난당했는데, 특히 제3호의 손상이 심각하여 승원 약 150명 중 생존자는 28명에 불과했다. 제2호를 탄 엔닌은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 이후 견당사는 3척 편성으로 당나라를 향하게 되었다.

드디어 당나라 양주에 도착했을 때도 개펄에 좌초하여 매서운 풍파로 생사를 헤맸다(“漂流之間風強濤猛怕船將沈捨石擲物口稱觀音妙見意求活路…”, 838년 7월 2일). 상륙해도 고난이 이어졌다. 파리와 같이 큰 모기가 일행을 괴롭혔다(“漂着以來蚊虻甚多其大如繩入野惱人辛苦無極”, 838년 7월 13일). 기후나 음식물이 맞지 않아 설사나 열병에 걸리는 일행도 많아 장안 체류 중 제자 유이교를 잃었다(843년 7월 24일).

그 외 엔닌을 괴롭힌 것은 당나라의 행정적 절차와 정치 상황이었다. 구법 순례를 위한 공험(公驗: 여행 증명서)을 몇 번이고 신청해도 발급받을 수 없었으며 장안에서 구법 목적을 거의 달성했을 때는 중국 사상 최대의 불교 탄압 “회창(會昌)의 폐불”에 휘말리고 말았다. 구법의 성과인 경전이나 만다라를 바로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고 엔닌은 귀국 허가 신청을 100번 이상 올렸으나 귀국 허가는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엔닌은 강제 환속됨으로써 드디어 귀국 허가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귀국선을 구하는 데 아주 고생했다. 결국 초주와 적산을 세 차례나 왕복하여 겨우 적산을 출항하여 일본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다.

게다가 엔닌의 당나라 체재는 당나라 정부의 출국 명령을 어긴 ‘불법체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닌이 9년 이상의 구법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당 신라인의 보호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엔닌이 입국 시와 귀국 시에 당나라 해안부에 있었을 때, 행정 절차, 숙박, 이동, 귀중품의 보관, 편지의 교환, 돈·식료품의 조달, 당·신라·일본 정세에 관한 정보 입수 등 모든 면에서 신라인들에게 의지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재당 신라인 사회의 지도자는 장보고였다. 엔닌이 직접 도움을 받은 문등현(文登縣)의 압아(押衙) 장영(張詠), 초주(葱州) 신라인 지구 총관(總管) 설전(薛詮), 초주 통역관이자 설전의 후임으로 총관이 된

류신언(劉愼言) 등⁶은 모두 장보고의 부하였다. 또한 엔닌이 오대산에 가기 전에 8개월 이상 머물렀던 적산 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절이었다. 비록 엔닌이 장보고를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으나, 적산 법화원을 떠나기 직전인 840년 2월 17일에 장보고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다. 그 편지 서두에서 엔닌은 다음과 같이 장보고에 대해 최대한의 존경심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엔닌은 각하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 빌 수 없었기에 우러러 보고 싶은 마음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각하를 삼가 찬양하는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엔닌은 적산원에 머무르는 동안 다행히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스님들의 인덕을 후히 입어 특히 여정에서의 고단함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각하의 부하이신) 압아의 자애로운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보호를 받는 데 있어,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그 은혜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깊이 명심하여 감사한 마음만 더욱 커져갈 뿐입니다(此圓仁蒙恩隔以雲程不獲觀謁瞻矚日深欽詠何喻圓仁留住山院多幸過年厚蒙衆僧仁德殊慰旅情斯乃押衙慈造矣庇蔭廣遠豈以微身能酬答乎深銘心骨但增感媿).

이와 같이 엔닌이 당나라에서 구법 여정을 펼치며 재당 신라인들의 지원과 보호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한국인의 시각에서 엔닌을 ‘객지에서 고생하며 구법 활동을 펼치는, 도움을 받아야 할 시혜적 존재’로 재현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류학의 고전 『증여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증여를 바탕으로 한 교환 관계는 인간 존재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간은 교환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존재이다(Mauss 1924). 이에 따라 일방적인 시혜 관계만으로는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9년 이상 지속된 엔

6 재당 신라인 공동체에는 촌장, 총관 혹은 압아로 호칭되던 유력자가 있었으며, 그들이 신라인 사회를 대표하여 신라인들을 이끌고 있었다(권덕영 2003: 10).

닌과 재당 신라인의 관계를 단순히 시혜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시혜 관계로 본다면, 재당 신라인이 왜 ‘과잉’에 가까운 시혜 행위를 엔닌에게 베풀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2) ‘호혜성’ 관점에서 본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

위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필자는 엔닌과 재당 신라인 사이에 ‘시혜성’보다 ‘호혜성’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들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경제적 호혜성

우선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경제적 요소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광학적 관점에서 이들의 관계를 분석한 고태규(2020)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재당 신라인은 뛰어난 항해술을 발전시켜 해상 무역뿐만 아니라 신라와 일본에서 중국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여행을 지원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사업의 내용은 교통 서비스, 숙식 서비스, 행정 대행 서비스⁷ 등이었다. 또한 통역 및 가이드 서비스, 통신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등 광범위한 활동에 종사하였는데, 현대적으로 보면 여행사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고객은 선진 문명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서 당나라로 파견된 견당사 일행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와 견당사(838-839년)에 동행한 엔닌은 재당 신라인에게 ‘시혜 대상’이라기보다는 ‘주요 고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엔닌과 재당 신라인 사이에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거래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행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엔닌은 일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재당 신라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태규 2020: 31-32).

7 고태규 논문(2020)에서는 “비자대행 서비스”로 표현되어 있으나, 정확히는 재당 신라인은 나라를 왕래하기 위한 시증뿐만 아니라 당나라 국내를 이동하기 위한 공험(公驗: 여행 증명서)과 같은 행정 문서 발행도 도왔기에 이 논문에서는 “행정 대행 서비스”로 표현하고자 한다.

(839년) 3월 22일, 이른 아침에 사금 대 2량과 대판 허리띠 하나를 통역관 유신 언에게 주었다(廿二日早朝沙金大二兩大坂腰帶一送與新羅譯語劉慎言).

(839년 4월 5일, 일본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조와 견당사 대사가 엔닌에게 체류 경비로 금 20 대량을 주셨다(節下賜金廿大兩).

(845年 6月 28日 귀국 길에 양주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물건(뇌물)을 보내어 초 주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현 관리는 바로 초주로 갈 수 있게 해주었다(用物請往楚州縣家便遞向楚州去).

(846년 10월 2일, 각종 공문서, 서한 등과 함께) 천황께서 하사해주신 황금 등을 받았다(勅施黃金等).

이에 엔닌과 재당 신라인은 경제적으로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생각 된다.

다만 이들의 관계를 경제적 요소만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들이 엔닌에게 베푼 지원에서는 단순한 경제성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감지된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당 신라인이 엔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내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재당 신라인 관료의 엔닌에 대한 인식

① ‘이별’에 대한 주목

이병로의 연구(2000: 383-405)에 따르면, 『행기』에서 엔닌은 당나라에서 구법 활동을 하며 신라 승려와 16번, 신라인 관리와 32번, 신라 통역관과 26번, 신라인 상인과 31번, 기타 신라인과 17번, 총 122번 접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병로의 연구는 엔닌이 만난 신라인을 직업별로 분류하고, 동아시아 교류의 관점에서 활발한 민간 교류 양상을 분석한 종합적 연구로 평가된다. 다만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내면적 상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기』에 기록된 교류 장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행기』에 기록된 그들의 교류 장면은 투숙, 서신 송부, 배 조달

의뢰 등 대부분 객관적인 행위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들의 내면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닌과 재당 신라인은 총 122번이나 접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많은 접촉은 양측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횟수만으로는 그들 간의 상호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약 9년 반에 걸친 엔닌의 당나라 구법 여정은 대략 ① 천태산에서 천태 교리를 배우려고 양주와 적산 법화원에서 머무르던 시기(838-839년), ② 행선지를 천태산에서 오대산으로 바꾸어 적산 변화원에서 오대산으로 이동하고, 오대산에서 천태 교리를 배우던 시기(839-840년), ③ 오대산에서 천태 교리를 배운 뒤 장안으로 가서 밀교 교리를 배우던 사이에 예기치 않게 일어난 불교 대탄압 ‘유치정책의 폐불’을 겪던 시기(840-845년), ④ 소기 구법 목적을 달성하여 귀국선을 찾기 위해 중국 연안을 왕복하던 시기(845-847년)의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행기』에 나온 ‘이별’의 장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별’은 상호 간의 관계성이 압축적으로 표출되는 순간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동이 많았던 만큼 그 구법 여정은 이별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성이 가장 뚜렷하게 표출되는, 여정을 마무리할 때의 이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장영의 경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재당 신라인이자 문등현 잡아였던 장영이 엔닌의 귀국을 돕고 배운 모습이다. 장영은 숙소 제공, 장기 체류를 위한 당국과의 교섭, 귀국선 수배 등 엔닌의 구법 활동을 초기부터 꾸준히 지원한 인물이다. 845년에 엔닌이 구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중국 연해안에 도착한 후, 장영은 그의 귀국을 전폭적으로 도왔고, 847년 2월에는 귀국선을 건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나라 법률상 외국인의 귀국을 위한 배를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그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에 엔닌은 명주(현 Ning보시)로 가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때 장영은 자신이 주도한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꼈는지 20리(약 11km)나 함께 동행하다 겨우 헤어졌다고 한다(“閏三月二日出行

主人張大使二十里相送始別”).

또한 847년 6월 10일, 엔닌이 초주에 머무르고 있을 때 드디어 귀국선을 찾아냈다는 소식에 재당 신라인인 설전과 장영의 남동생 장종언, 그리고 어머니⁸가 특별히 송별연을 열어주었다고 한다(“薛詮及登州張大使舍第張從彦及孃皆送路”). 이 송별연에 장영은 참여하지 못했으나, 그의 가족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후 7월 21일, 엔닌이 등주(登州)에서 출항을 앞두고 귀국선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장영이 육지에서 배로 들어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고 기록되어 있다(“廿一日到登州界泊船勾當新羅使同十將張詠來船上相看”). 뿐만 아니라 장영은 8월 9일에 엔닌에게 작별 선물을 보냈다(“八月九日得張大使送路信物”).

이와 같이 장영은 끝까지 엔닌을 지원했으며, 본인이 참석하지 못한 송별연에는 가족을 참여시켰다. 이를 단순한 시혜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양자 간에는 그것을 초월한 끈끈한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엔닌이 장보고에게 보낸 서신에서 나타나듯, 그는 항상 자신의 구법을 도와준 재당 신라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영을 비롯해 엔닌을 지원한 재당 신라인들은 엔닌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행기』에서는 재당 신라인이 엔닌의 귀국을 도왔을 때, 그들의 내면을 행간에서 짐작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기록은 없다. 따라서 그들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를 통해 유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이원좌(李元佐)의 경우

『행기』를 보면, 엔닌을 도운 신라인이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이원좌라는 재당 신라인으로, 장안에서 좌신책군 압아(左神策軍押衙)라는 고위 관료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그 역시 엔닌을 정성껏 도왔다. 엔닌은 840년부터 장안에 머물며 밀교 교리를 배우고 있었

8 “孃”에 대해서는 여동생이나 아내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深谷憲一 역서에 따라 어머니로 해석했다.

나, 842년경부터 무종(武宗)에 의한 불교 대탄압 ‘회장의 폐불’이 시작되면서 온갖 고충을 겪게 되었다. 841년 구법의 목적을 달성한 엔닌은 귀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엔닌은 843년 8월 13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원좌를 찾아가 상의했는데, 이원좌는 기꺼이 그를 맞아주었다(“八月十三日爲求歸國投左神策軍押衙李元佐是左軍中尉親事押衙也信敬佛法極有道心本是新羅人〈중략〉相見許計會也”).

결국 845년 5월, 엔닌은 강제로 환속됨으로써 귀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행기』(845년 5월 14일)에는 이원좌에 대해 “내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상의하러 찾아간 이후, 서로 알게 된 지 거의 2년이 되었다. 그는 의리와 정이 매우 두터운 사람으로, 가장 친하게 지냈으며 장안 체재 중 불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도움을 주었다(李元佐因求歸國事投相識來近二年情分最親客中之資有所闕者盡能相濟緣)”라며 엔닌의 감사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이원좌가 없었더라면 엔닌은 장안에서 겪은 ‘회장의 폐불’을 견딜 수도, 무사히 귀국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한편, 이원좌는 엔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는 역시 두 사람의 이별 장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행기』(845년 5월 14일)에는 그 모습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원좌가 말하기를) “화상의 제자인 이원좌는 윤회다생을 거쳐 다시 뵈 수 있어 행복합니다. 화상께서 멀리 일본에서 오셔서 불법을 구하실 때 뵈 수 있었고, 몇 년 동안 공양을 드렸으나 아직 마음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평생 화상 곁을 떠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화상께서는 지금 천자의 재난을 당하여 일본으로 귀국하시려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생에 다시 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생에는 반드시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정도에서 다시 오늘처럼 화상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화상께서 성불하실 때 부디 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상께서 입으신 승복을 여기에 두고 저에게 주십시오. 집에 가지고 가서 죽을 때까지 향을 피우며 공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나는 승복을 이원좌에게 선물했다(惜別慳勸乃云弟子多生有幸得遇和上遠

來求佛法數年供養心猶未足一生不欲離和尚邊和上近遇王難却歸本國去弟子計今生應難得再見當來必在諸佛淨土還如今日與和尚作弟子和上成佛時請莫忘弟子云々又云和上所着納袈婆請留與弟子將歸宅裏終身燒香供養既有此言便以送之).

이 기록을 통해 이원좌가 엔닌을 불교의 스승으로 모시며 온갖 편의를 제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엔닌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에서 당나라로 건너가 오대산에서는 천태 교리를, 장안에서는 밀교 교리를 배우며 상당한 불교적 경지에도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원좌는 이러한 엔닌에게 아낌없는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에는 단순한 ‘시혜성’이 아닌,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호혜성’⁹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장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행기』에는 장영의 내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으나, 그가 엔닌에게 베푼 후한 지원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에도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호혜성과는 또 다른 ‘정신적 호혜성’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 분석한 바와 같이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관계는 단순히 ‘시혜’ 관계로 보기 어렵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재당 신라인이 엔닌에게 보여준 ‘과잉’에 가까운 후한 지원은 ‘해상 비즈니스’라는 경제적 요소와 불교 신앙적 공감대가 맞물려 형성된,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

9 인류학에서 ‘정신적 호혜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데, 심리적·정신적 차원에서의 상호 교환을 강조하기 위해 필자가 고안한 개념임을 밝힌다.

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역사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9세기 당나라에서 구법 활동을 펼친 유학승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에 주목하였다. 엔닌이 남긴 『행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당 신라인이 엔닌에게 꾸준히 제공한 ‘과잉’에 가까운 지원을 일방적 ‘시혜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모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교환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존재로서(Mauss 1924) 일방적인 시혜 관계만으로는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엔닌과 재당 신라인 사이에 ‘시혜성’보다 ‘호혜성’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함께 재당 신라인과 엔닌의 관계가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이별’ 장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들에게는 단순히 일방적인 시혜 관계라기보다는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맥락에서 경제적 ‘호혜성’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깊은 ‘정신적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재당 신라인이 엔닌에게 따뜻한 지원을 해준 덕분에 엔닌은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9세기 재당 신라인의 활약상을 오늘날까지 생생히 전달하는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이에 양자의 호혜적 관계는 단순히 당대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까지도 그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내 40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은 예측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은 수업 경험, 성적, 장학금, 기숙사와 같은 자원 경쟁에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재은·최태형 2024; 10·19).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지나치게 시혜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불공평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시

혜적' 정책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마중물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귀중한 인재라는 점, 즉 한국 사회와 외국인 유학생은 '호혜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널리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계몽 활동은 한국인 학생 및 지역 주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거나,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구체적 사례로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중 고대부터 근대기까지 한국은 유학생 송출국이었으며, 유학생들이 가져온 선진적 지식과 기술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유학생의 이동이 국제교류와 이해를 촉진해 왔다는 사실 등, 유학생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육의 콘텐츠 개발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콘텐츠는 유학이라는 행위가 유학생 수용국과 송출국의 관계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호혜적' 원원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9세기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일본인 승려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류는 유학이라는 행위가 가져오는 '호혜적' 원원 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신: 아라키 준(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초빙교수)(jirosuan@naver.com)

Correspondence: Araki Jun (Visiting Professor,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jirosuan@naver.com)

2025.01.22 접수, 2025.01.22 심사, 2025.02.19 게재확정

참고문헌

경향신문, 2023.06.13,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풀 실마리 찾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132045005>.

- 고태규, 2020, 9세기 일본인의 중국 여행에 대한 재당 신라인의 역할: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2), 19-35.
- 관계부처 합동, 2024,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4.06.20,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
- 권덕영, 2003, 在唐 新羅人의 綜合的 考察-9세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48, 1-42.
- 권순홍, 2024, 현행 역사교과서의 이주민 관련 서술 검토 -고대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23(1), 105-125.
- 권오영, 2024, 한국 고대사 연구의 미래를 위한 제언 -21세기 2/4분기를 맞이하며, *한국고대사연구*, (114), 105-134.
- 김성은·이교일, 2019, 한국 정부 유학생 교육정책의 계보와 과제, *교육문화연구*, 25(5), 61-78.
- 김육훈, 2017, '국정교과서 논란' 이후 역사교육 논의의 방향, *역사와 교육*, (15), 85-119.
- 김윤주, 2024,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한국어교육 정책 고찰, *한성어문학*, 52, 1-33.
- 김인희, 2014, 적산(赤山) 법화원(法華院)의 8월 15일 명절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34, 317-352.
- 김한중, 2017, 시민역사교육을 위한 내용구성 원리, *역사교육연구*, (29), 7-44.
- 남도일보, 2024.06.05, "가혹한 연구 환경 구조적 개선을" 숨진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 동료들 청원서 제출,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943>.
- 방지원, 2015, '국민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주체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과정으로: 향후 역사교육과정 연구의 진로 모색, *역사교육연구*, (22), 77-113.
- 서영대, 2022, 재당 신라인의 추석 명절음식 '餠飩(餠飩)', *민족문화*, 62, 129-173.
- 석길암, 2017, 재당(在唐) 신라인사회에서 신라원(新羅院)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동아시아불교문화*, (32), 369-390.
- 신종원, 2021, 추석 명절의 정체성 -신라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84), 57-94.
- 이병로, 2000,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나타난 한국고대사상 -엔닌을 통해 본 신라인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13, 379-408.
- 이병로, 2011, 해안 초기의 동아시아세계의 교섭과 현황, *일본어문학*, 53, 493-512.
- 이유진, 2009, 엔닌의 入唐求法과 在唐新羅人社會의 정보력, *동국사학*, 46, 95-118.
- 이춘희, 2022, 동북아시아 불교교류사의 관점에서 본 『입당구법순례행기』: 일본 구법승 엔닌과 재당 신라인의 교유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22), 1-52.
- 전재은·최태형, 2024,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과 접촉 경험 간 관계: 대학 특성별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4(3), 109-136.
- 조범환, 2010, 9세기 赤山法華院의 佛敎儀禮-특히 菩薩戒受戒의례를 中心으로-, *한국고*

- 대사탐구, (4), 153-178.
- 주성지, 2020, 『입당구법순례행기』 지명분석을 통한 圓仁의 路程 복원, 신라사학보, (48), 95-132.
- 佐伯有清(사에키 아리키요), 1989, 円仁, 吉川弘文館.
- 佐伯有清(사에키 아리키요), 2007, 最後の遣唐使, 講談社学術文庫.
- 圓仁(엔닌), 9세기, 入唐求法巡礼行記, 深谷憲一(후카야 겐이치) 옮김, 1990, 中央公論.
- 鈴木靖民(스즈키 야스타미), 2009, 円仁とその時代, 高志書院.
- KBS뉴스, 2023.02.02, 문체부까지 나섰지만...대구 이슬람 사원 해결 요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96125>.
- KBS뉴스, 2024.05.24, 전남대 유학생 사망...“정신과적 위기상황 대책 부족”,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1848>.
- Mauss, Marce, 1924, Essai sur le don : forme et raison et raison de l'echange dans les societees archaiques, 증여론, 류정아 옮김, 2011, 지식음만드는 지식.
- ZHANG YUAN, 2024, 9세기 在唐 新羅人 社會 自治의 실상과 형태, 진단학보, (142), 27-63.

A Foundational Study on History Education Contents for Spreading Positive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by Focusing 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nnin and Silla Residents in Tang

Araki Jun*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ddhist monk Ennin, who visited Tang Dynasty China in the 9th Century from Japan, and Silla residents in Tang and analyzes the travel journal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written by Ennin to serve as foundational research for developing history education contents to foster a positive im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society. The analysis asks whether the support continuously given by Silla residents to Ennin should be understood as one-sided “charity,” and shows that the relationship was a “reciprocal” relationship operating within the context of maritime trade in East Asia as well as a “reciprocal” emotional relationship grounded in the Buddhist faith. By highlighting this historical relationship, we can devise history education contents to assuage feelings of unfairness in Korea toward international students derived from feelings of unfairness related to seemingly charitable policies.

Keywords Improving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Ennin, Silla Residents in Tang, Reciprocity,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 Daegu University,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Cultural Anthropology, Visiting Professor, jirosuan@naver.com